

인권정보자료실

G1.93

형평운동 기념탑 준공기념  
'96 진주인권회의

# “지역사회의 인권문제와 형평정신 ”

....

1996년 12월 10일은

인간 존엄과 평등 사회를 여는 날

때 : 1996. 12. 10. (화) 오전 10:30

곳 : 진주상호신용금고 3층 문화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외부문제와 지역사회”  
“성공회동”

.....  
음양이 물과 불이 되어  
날과 밤이 바뀌어 가는 세상

08:01 250 (12) .01 .2001 : 100  
김영문 주8 도출출출출출출출 : 20

## 차 례

- ◎ 형평정신 구현은 지역사회로부터----- 3  
인사말씀: 김 장 하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회장)
1. 장애인 문제----- 5  
발제: 김 기 수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진주시지회 지회장)
2. 노인 문제----- 10  
발제: 이 재 환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원장)
3. 여성 문제----- 14  
발제: 강 문 순  
(진주성폭력상담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
4. 빈민·결손 가족 문제----- 22  
발제: 이 규 성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형평정신 구현은 지역사회로부터

김 장 하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회장

오늘 형평운동 기념탑의 준공에 맞추어 뜻깊은 '96 진주인권회의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70여 년전 우리의 선조들이 벌인 형평운동은 신분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 존엄과 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한 인권 운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영원한 소망인 자유와 평등을 실천하고자 한 형평운동의 정신은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운동의 기념탑을 세우면서 기념 행사로 우리 지역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48회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참혹한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은 인류 사회는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을 겪지 않는 평화스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시키는 사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구호나 문서로 머물러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을 정치적인, 법률적인 개념으로만 한정시켜 이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인권 개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종이나 성(性), 나이, 장애 여부, 직업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의 차이 때문에 서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 탓으로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과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형평운동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인간 존엄과 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살맛나는 사회'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지역 사회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진주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 빈곤 및 결손 가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우리 이웃의 암담한 인권 상황을 이 분들은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진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알고, 또 대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각 부분에서 외롭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겪는 문제들을 서로 알 때 그 해결책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주성 앞에 세우는 형평운동 기념탑도 '작은 힘을 합치면 어떠한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운동의 정신을 이해하고 계승하고자 하면서 기념탑 건립에 참여한 사람만도 1,500 여 분, 단체도 40개 가까이 됩니다. <형평운동 기념사업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평운동이 무엇인가?" 조차 몰랐던 상황에 비추어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처럼, 평등한 인권을 구현하는 일이 지금은 험겹지만, 서로 힘을 합칠 때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일로 바쁘실 터인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각 분야에서 흔쾌히 발제를 승낙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96 진주인권회의

# 장애인 문제

김기수\*

## 장애인 복지정책의 당면과제 및 대책

먼저 형평운동 기념탑 준공식에 지역사회 인권문제의 발제자로 참석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형평운동이 우리나라의 영원한 인권평등으로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바로 선진복지사회입니다. 때문에 선진복지국가의 공통적 특징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혼합경제체제의 운용, 그리고 고도의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 복지사회의 근간이 될수있는 장애인복지수준이 OECD에 가입하는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복지수준이 향상될수 있도록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에 국한시 될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이며 우리나라는 세계2차대전예 일본의 식민법에 의거하여 전쟁에 참여했고 그이후 6. 25의 민족전쟁, 월남전의 용병참여 등 많은 전쟁을 치룬 나라이며 전국에 400만 장애인중 우리 진주에도 비등록장애인 1만여명과 등록장애인중 지체장애인: 2,212명 정신박약: 351명 청각및 언어장애인: 272명 시각장애인: 165명 등 3천명이며 합계1만3천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들의 당면과제를 짧은 시간에 논한다는것은 어려우나 몇가지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우리 생활의 여건과 환경이 향상되어 윤택해졌다지만 구석구석에 아직도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많습니다.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면서 장애인 시설이 이웃에 들어선다는 말만 나오면 땅값이 내린다. 내자식 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등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 현실앞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높은 담이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살피 정책개정을 시행함이 옳으리라 봅니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지회장



UN에서 1975년에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결의하고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결의함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인간존엄성과 완전참여, 평등을 보장한 것은 진주의 형평사 운동과 그 핵이 같다고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시행되어 많은변화와 장애인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해왔으나 아직 장애인 복지문제에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며 장애인 복지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어가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가까운 일본에서는 1949년에 심신장애인 복지법이 시행되어 실제로 다함께사는 이념이 폭넓게 확산되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빠르게 장애인 보호시설의 차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오늘날 일본은 장애인의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은 사회 여러곳에서 박탈당한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논리와 결정의 과정에서 주인인 장애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정상인의 일방적인 사고로서 정책이 이루어짐으로 장애인의 현실복지가 되지못하고 있는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1. 경제적인 문제

우리나라 장애인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본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가구주 35%가 무직이고 월평균소득이 30만원이하가 400만장애인중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이 얼마나 빈민층에 속해있는가를 증명해주는 예일것입니다.

이 경제생활문제에 따른 대책에는 생활보호제도, 생계보조수당, 주택분양우선권부여등이 있습니다.그러나 현행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 일할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자기가 기거할수있는 집한채 또는 장애인 보철용차량1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실정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어렵게 보철용으로 차를 구입해 생활해나가는데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하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반인과 같은 위치에서 복지혜택을 시행하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이에 장애인복지는 분명 일반인과 차등화 되어야 하며 생활보호법도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보조수당 또한 일률적으로 장애등급1급부터 2급장애인으로 중복장애를 가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국한적으로 1인당 월4만원을 지

급하는데 이것은 장애인을 동정적 차원에서 돕는다는 시늉에 불과합니다.장애인 개인의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 보여지며 연금법에 의한 실업자 연금혜택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 2. 취업 문제

장애인 취업문제를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이후 사업장에서는 전보다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 하고 있으나 취업할 장애인수에 비해 사업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직종이 없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분담금만 내는 실정입니다.장애인들의 취업문제부분에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전용작업장 증설입니다.우리 진주시에서도 “장애인 전용작업장” 시설을 갖추어 본협회에서 운영을 하며 시에서 일부의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라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전용작업장 역시 읍, 면, 동마다 설립되어 대기업이 복지차원에서 작업물량공급이 되는 운영방식으로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장하여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작업장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장애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위로받을수 있는 생활공간이며 영원한 직장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동, 여성, 노인문제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반해 장애인 문제는 제외되는 정도의 정책으로 변하는것 같으며 장애인 행사시 겨우 장애인 복지증진 운운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복지정책에 구멍이 난것이 아닌가 봅니다.장기적으로 보아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알선, 재활작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을 안정시키고 사회에 참여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함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 3. 교육 문제

장애인 교육에서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특수학교가 도시를 제외한 농어촌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아동들은 교육에서 제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109개교이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급수와 학교수가 부족합니다.그리고 특수교육수준 역시 아주 낮아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한다해도 교육을 받은장애인과 받지못한 장애인이 별 차이가 없으며 사회에 나가 적응하지 못하고 재가장애인으로 지내는 실정이며 이 장애아동들의 교육문제는 일반아동들과 통합교육으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기교육기관은 몇개소에 불과하고 거의 90%(전국 230여개소 추정)가 사설조기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설기관이기에 장애아동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설교육기관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 수준있는 교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의무적인 교육사업으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4. 의료 문제

장애인 의료문제입니다. 중증장애, 산업장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은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고도성장아래 산업장애, 교통사고장애 등 당사자와는 무관하게 누가 언제, 어떻게, 장애인되어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기관의 설립도 더욱더 확대되어 장애예방, 치료, 교육, 취업, 재정적지원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느끼는 편의시설의 부족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복지혜택이 현실과 어울리지 않게 시행되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이 이용할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고쳐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이 함께 사용한다는 인식을 가져 토목이나 건축설계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장애복지대책의 기본바탕이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기에

이 많은 문제점들을 정책적인 과감한 개혁과 이에 따른 행정의 집행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서로 어울려 개선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계층의 지역민의 소리를 지방자치체에 걸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 5. 사회의식 문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 자신들이 보호받기만 바라는 자세를 바꾸어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로 이웃에 봉사하고 국가에 공헌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재가장애인들의 인식개선등을 위한 정부 복지차원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재가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이 선행조건이며 의식계몽을 실시함과

아울러 범국민적으로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정부투자의 현주소를 아름다운 사회복지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하여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한 자세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개념으로 보호할 때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가 오지않겠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형평운동 정신과 함께 우리장애인 복지도 발전해 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인 문제

이 재 환\*

### 1. 생보자 노인 문제

노인 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은 무의탁한 생활 보호 대상자 노인들이 인생 마감을 준비하는 무료 요양 보호시설입니다. 경남에 하나뿐인 이 시설의 당초 취지는, 경남에 거주하는 생보자 노인들을 입소시킬 목적이었으나, 현재의 실정은, 진주 시내의 희망자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저희 시설의 입소 정원 105명 중에서 사망자수만큼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14명내지 15명 정도만 입소가 되는 실정입니다. 진주시 복지과에 접수된 입소 대기자는 현재 20명이고 진주시내의 70세 이상 생보자 노인수는 1,370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할 때 1년에 137명이고, 평균수명이 85세라고 해도 1년에 91명이 됩니다. 1명에 91명을 수용하자면 저희 시설과 같은 시설이 6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하나뿐이라는 이 시설에서 생보자 노인 문제 해결은 얼마나 요원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생보자 노인들은 극빈자이고,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으며, 집도 없기에 마지막 갈 곳은 오직 요양원 뿐입니다. 고령화된 생보자 노인들의 인원수는 포화상태라 1년후의 일을 예측할 수 없을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썬전셋집을 찾아서 도시 변두리로 돌다가 어느날 갑자기 몸져 누우면 인근 주민이나 동회 직원 복지사가 돌보게 됩니다. 만약에 대소변을 가릴 수 없을 경우에는 위생 문제가 엉망이 됩니다.

인근 주민으로서 돌보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생길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원장

### 2. 생보자 노인들의 인권

생보자 노인들은 사회 소외 계층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한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보자 노인들은 의지할 가족이나 친분이 없고, 생계를 이어갈 재산도 없고, 기력도 없으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의식도 없고 연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표면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회 변두리나 후미진 구석에도 묻혀지고 가려진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자기의 권리 주장을 펼때는 사회를 시끄럽게 해야만 관심을 가져 주는데 생보자 노인들처럼 조용히 숨어 있는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생보자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권리를 누군가가 대신 주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삶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개발과 경제성장 정책만 무리하게 추진시키는 과정에서 인간관계 단절, 인간 소외 그리고 인간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이분들을 이토록 소외시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인생 말년을 맡길 수 있는 요양원 시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정부와 시민들과 모든 종교단체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 봅니다. 이것이 이분들의 인권을 살리는 길이고 현대적 형평운동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산업개발이 아니라 사회개발로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사회복지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절된 인간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가치를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가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에서 앞장서서 사회 복지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인간 삶의 의미와 인간가치를 고취시킬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들에게 말한다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복지 활동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교세 확장에만 신경쓰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불교계에서 복지 활동을 많이 시도하고 있음에 매우 고무적이고 기대가 큼니다. 불교의 저력으로 복지 사업에 이바지 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 지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행정부와 온 시민과 종교인들은 협력하여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외 계층을 찾아주고 인정을 나누고 그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진주시민으로서 형평의 정신을 살리는 길으므로 기필



코 이루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요양원 운영과 목적

요양원 운영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문제만 갖고서 실례를 들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요양원이 없음으로 저희 시설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표 2-1.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

구분	남	여	계	뇌졸중	고혈압	치매	실명자	당뇨	관절염	신체불구	기타질병	건강자	휠체어	기저귀	평균연령
명(수)	9	96	105	6	20	18	4	2	11	3	21	17	42	37	82

105명 중에 건강자는 17뿐이고 나머지는 몇가지씩 질병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기저귀 착용자는 하루 4-5회 기저귀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분이고 치매성 노인들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이 항상 보호의 손길이 필요 합니다. 실명자와 휠체어 탄 분들은 생활전반에 보조자의 손길이 따라야 합니다. 이분들은 신체적 질병만큼이나 마음의 질병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온 과정은 순탄치 못하여 소외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갖가지 한(恨)이 가슴에 쌓인분들이라할 수 있습니다. 배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 절망과 좌절에서 생긴 심리적 변화가 여러 형태의 특성과 질병으로 연관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신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드릴 수 있을까? 에 봉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력 절감이나 봉사의 피로움을 덜기 위해서 질병별, 혹은 특성별로 격리보호나 별도조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마음의 질병은 부당한 인간관계와 부당한 인간대우에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정당한 인간관계속에서, 인정의 손길속에서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열치열’이란 말과 같이 인간이 인간에게 받은 상처는 또한 인간에 의해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양원 운영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설의 봉사자 현황을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2. 프란치스코의 집 봉사자 현황

구분	직 원							봉 사 자		
	축탁의사	간호사	보조원	주방	세탁	청소	계	장기봉사	일일봉사	계
명(수)	1	3	21	4	2	1	32	4	10	14

하루 40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노인들의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없는 분들에게 손자 손녀가 되어주고, 아들 며느리가 되어 줍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 주는데, 아마도 어머니 역할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기처럼 하루 너털차레 기저귀 갈아주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더러운 것 닦아주고, 얼굴 씻기고, 양치질 시켜주고, 옷갈아 입히고, 양말 신겨 주고, 투정과 불평을 할 때는 달래어 줍니다. 밥을 먹여주고 침대에 안아다가 눕히고, 휠체어 태워서 다닙니다. 그리고 수용자 전원이 함께 모이는 횃수가 하루에 6회이상 되는데, 아침 기도시간과 3회 식사시간과 1회 체조시간, 1회 간식시간은 일과 시간에 들어 있는것이고, 그 외에도 위문공연이나 명절과 축일,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원이 모여서 어울립니다. 그때, 직원들은 노인들의 말벗과 친구가 되어 줍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옆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보고 웃기도 하고 흥겹게 노래도 부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 화를 돋구어 소리를 지르게 만듭니다.

이와같이 하루종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정의 손길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보면 단혔던 마음은 차츰 열리고, 쌓여진 한(恨)은 잊혀지면서 마침내 해맑은 미소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구겨진 천성은 도로 펴져서 순수한 인간의 모습과 순진한 본성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회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모두가 잠들 듯이 편안한 모습으로 운명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괴로운 봉사의 보람을 느낍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야하는 인간의 원 고향인 저 세상으로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게 도와 드리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효도이고 인권 존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b>여 성 문 제</b>	
강	문 순*3)

### 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인권의 문제 즉 여성문제는 개인적인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로 인식되어져 왔다. 모든 정책이나, 담론의 주체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문제는 다른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비해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온 것이다. 또한 남성성을 상징하는 힘이 미덕인 사회에서 남성적인 힘(물리적인 힘과 심리적인 힘을 포함해서)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약자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여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왔다. 여성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버리거나 약자 집단 내부에서조차 여성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되었으며,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여성 내부에서도 성차별을 내면화하여 피해의식을 품고 있다던지, 아니면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어려웠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이다.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도 대상물도 아닌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인간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 문화적인 바탕 위에서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범죄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의 인권에 대한 토론회에서 여성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다룰 수 있게 되어 반갑게 생각한다. 성폭력상담소주비위에서 발제하기로 한 내용은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인권 침해상황과 주비위의 활동 내

\* 진주성폭력상담소 주비위원회 주비위원

용 및 목표이었다. 그러나 현재 성폭력상담소가 준비중에 있는 관계로 우리가 직접 상담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문에 보도된 진주 인근의 사례와 진주 YMCA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 상황을 이야기 하고, 성폭력상담소의 준비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2. 여성의 인권 상황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유형은 많겠지만 우선 크게 나누면 사회, 또는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1) 성차별

가시적인 성차별의 관행은 그동안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노력으로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성차별의 관습은 사회 곳곳에 온존하고 있다.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에게 부과되는 이중적 성윤리, 전통적인 남성·여성관에 의한 성역할 교육 그리고 직장내 차별에 이르기까지 그 관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뿌리박혀 있다.

#### ① 성별낙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성차별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성별낙태의 문제이다. 얼마전 태아 성감별과 성별낙태를 시술한 의사들이 구속된 보도도 있었지만 성별낙태는 한해 적게는 2만건 많게는 5만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남녀의 성비를 훨씬 넘어선 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아이 106.6, 둘째아이 114.9, 셋째아이 206.5, 넷째아이 253.4까지)

호주제로 밀받침된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이런 성비의 불균형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10년 후면 남성 5명중 1명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여성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태아상태에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여성들의 인권상황이다.

#### ② 직장내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의 직장내 성차별을 줄이려는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취업여성)



의 많은 부분이 임시직에 한정되어 있다.(시간제 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85% -93년) 직장내에서도 임금, 승진기회 등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금년 상반기 고용평등추진본부의 고용불평등고발센터에 접수된 바에 따르면 성차별 22%, 부당해고 20.5%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성추행도 일반적으로 여성의 낮은 지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직장내 성차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사례 1) 승진차별

제목 : 삼천포 신협 승진차별로 고소당해

부당한 인사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직원에게 회사측이 징계를 결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삼천포 신용협동조합의 김두선(39)씨는 95년 9월 직원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시간, 즉 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3년의 과장실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온 조합관례를 어기고 근무연한이 모자라는 입사후배인 김덕실 씨를 승진시키고 자신은 승진에서 누락시킨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대리승진에 7년이 걸린데 비해 김덕실씨는 5년 6개월이 걸렸으며 과장승진에서도 김두선씨는 5년이, 김덕실씨는 2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진정서 제출은 김씨가 입사 후배인 김덕실씨를 부장으로 승진시킨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시정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회사는 11월 정기이사회에서 김덕실과장을 부장으로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96년 3월 30일까지 회사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진정서 제출이후 회사측에서는 사내 사정상의 이유로 96년 2월 1일 김두선씨를 외부출장소로 발령시키고 3월부터 김두선씨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이영술 이사장은 “사내 자체 규정과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다. 대외 업무나 협외능력과 직원 통솔력 등을 종합 평가해서 결정한 조치” 라고 밝혔다. 지난 4월 4일 김두선씨는 노동부에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4월10일 노동부는 이영술 이사장을 소환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아 현재는 2차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이다.

김씨는 81년 6월 19일 입사하여 88년 7월 1일에 대리, 93년 5월 1일에 과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부장으로 확정된 김덕실씨는 85년 12월 16일 입사하여 91년 6월 1일 대리 승진, 93년 5월 1일에 과장서리로 임명된 바있다.

김씨는 이번 고소사건을 단순히 승진차별에 대한 문제보다 회사의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에 대한 항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작은 승진차별 반대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회사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고발한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96년 1월부터 직원들에게 조기출근을 지시하고, 직원 평점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3월에는 김씨를 엄정처벌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 도장을 받게 했다. 이때 여직원 3명은 끝까지 날인을 거부했다.

회사측에서는 5월 7일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명령불복종, 근무성적불량, 위계질서 파괴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회사측에서는

외부 출장소로의 발령에서 현재는 징계 위기에 있는 김씨는 회사가 2차 소환요구를 무시할 경우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민우회 최명숙 간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교육배치 및 승진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남녀 차별적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회사측의 조치는 위법인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여성신문

#### 사례 2)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한 여성은 술을 마시러가자는 사장의 제의를 거절하자 사장에게서 심한 폭행을 당했다. 쓰러져 누워있는데도 발로 차고 욕을 하기도 했다. - 진주YMCA 소비자 상담실

#### 2)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은 폭력범죄로서 인간에 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성, 또는 가정이라는 접두어로 인해 개인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황이다. 물론 이런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에 한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아직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므로 여성의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폭력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힘의 강제로서 가장 비열한 폭력범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 폭력과는 달리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사건이 드러났을 경우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폭력범죄가 이것이다. 이런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사회, 언론 등에 의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성폭력의 배경에는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의 이중우리가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여성을 소유물이나,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며,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남성의 폭력에 관대한 사회풍조가 죄의식없이 타인의 정신과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와 피해를 당하고도 자신을 탓하는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① 성폭력

우리나라의 성폭력 보고건수는 년 7천건으로 세계 2위(93년 통계)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이것의 몇배가 되리라고 본다. (년간 약 30만건으로 추정- 신고율 2.2%)우리 지역에서도 성폭력 사건의 보도는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전 사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구속된 사건에서부터 직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힘있는 남성들에 의한 힘이 없는 여



성에 대한 성폭력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많고, (부산 성폭력상담소의 연간 상담건수 중 미성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8.8%이었다.) 미성년자 성학대는 여성의 상품화, 인신매매등과도 연결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 사례1) 성추행

모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기가 예사였다고 한다.

한번은 교사를 집에 바래다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시외로 데려갔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원장은 교사에게 뽀뽀해주겠느냐, 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등 위협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밀어 넣는 행동을 해 심한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 - S 유치원 원장의 성추행사건 사례 중에서

#### 사례2) 성폭행

15세의 모양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 오던 중 어떤 남자로 부터 강간을 당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생리가 없어 걱정이 된다. 임신이 아닌 가하는 의구심으로 항상 불안하다. 죽어버리고 싶다. - 진주 YMCA 소비자 상담실

#### ② 가정폭력 - 아내구타

우리나라 주부 중 남편으로부터의 구타를 경험한 사람은 61%이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폭력이 남용되고 있고, 사회적 제재가 있으면 폭력을 시행하지 않을 군의 사람들도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김병후, 가정폭력, 가정상담 9월호, 가정법률상담소)

가정 폭력은 가정 불화와 구분되는 폭력으로 상대를 지배, 통제하려는 비인간적인 범죄이다. 「한국 여성의 전화」의 1995년 상담 통계에 의하면 구타 상담이 전체의 21.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고 한다. YMCA에 접수된 이혼상담에서도 그 대부분의 이유가 남편의 심한 구타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26%를 차지한다고 한다. 아내 구타가 개인의 가정사만이 아닌 흉폭한 범죄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사례 1)

\*\* 끝내 죽음 부른 <아내 폭행> \*\*\*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40대 여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밤새도록 남편에게 두들겨 맞던중 새벽녘에 끝내 숨졌다. 14일 오전 5시40분 마산시 합포구 대내동 2-4 동명

상회 앞길에서 이 가게주인 강청씨(53.페인트공)의 부인 구순남씨(48)가 알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과 새벽 등산객들이 발견, 119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했다. 구조대는 절명 직전인 구씨를 급히 인근 백남병원으로 옮겼으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다.

경찰과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준 돈 50만원으로 부인 강씨가 허락없이 가게에서 판매할 담배 등 물품 50여만원어치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전날 오후 6시부터 11시간에 걸쳐 구씨를 무차별 구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강씨는 특히 폭행과정에서 구씨가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겨 감금한 후, 주먹과 맥주병, 재떨이 등으로 밤새 두들겨 뺐다. 살인폭력의 현장에는 숨진 구씨의 것으로 보이는 변(便)과 피문은 속옷, 티셔츠, 깨진 맥주병, 재떨이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안방과 부엌, 세면장에 혈흔이 남자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강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일단 상해치사혐의로 긴급구속한 후, 고의 살인여부를 계속 수사중이다. 조사결과 강씨는 결혼 초기부터 심한 의처증증세를 보이며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슬하에 각각 26, 25, 24세된 아들을 두었으나 이들 모두 객지에서 회사에 다니거나 군복무 중이어서 사건현장에는 없었다.

둘째아들은 이날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의 폭행이 워낙 심해 평소 어머니에게 이혼하고 나와 함께 살자는 얘기를 수차례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이웃 주민은 숨진 구씨에 대해 「남편의 의처증때문에 평생 입술에 루주 한번 바르지 않았고, 문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본 착한 여자였다」고 말했다. - 경남매일

구타당하는 여성의 막다른 해결책은 이혼이다.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통념으로 인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 사례2)

모씨는 결혼 20년째 남편의 폭력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폭력으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었다. 자녀는 4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가출 경험이 있고 한 아이는 본드흡입에다 교도소 생활을 한 적도 있다. 술만 먹으면 험해지는 남편,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그래도 살아 보려고 애썼다. 지금은 더이상 살 수가 없다, 아이들도 이혼하라고 본인을 설득하고 있다. 남편과 합의이혼 도장은 찍은 상태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 - 진주 YMCA 소비자 상담실 접수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유형에는 이상의 유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상의 유형을 예로 든 것일 뿐이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리 가정, 학교, 사회, 직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성의 상품화도 그 중의 하나이다. 여성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사건, 그에 따른 인신매매사건, 그리고 대중매체 등에 의해 조장되는 여성의 상품화 등도 심각한 문제이다.



### 3. 성폭력상담소의 활동과 목표

진주지역은 여성에 대한 시각이 타도시에 비해서 보수적인 편이다. 통계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여성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느껴진다.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성 스스로의 성차별의 내면화, 남성의 성적 방종에 대한 관대함 등에서 그것을 느낀다. 그러나 보도나 신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는 진주지역이 타지역보다 많지 않다. 이것도 역설적으로 진주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오히려 사례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를 가해자나 피해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풍조로 인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한 곳이 진주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은 한 기폭제가 되었다. 성추행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켜보면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진주성폭력상담소 준비위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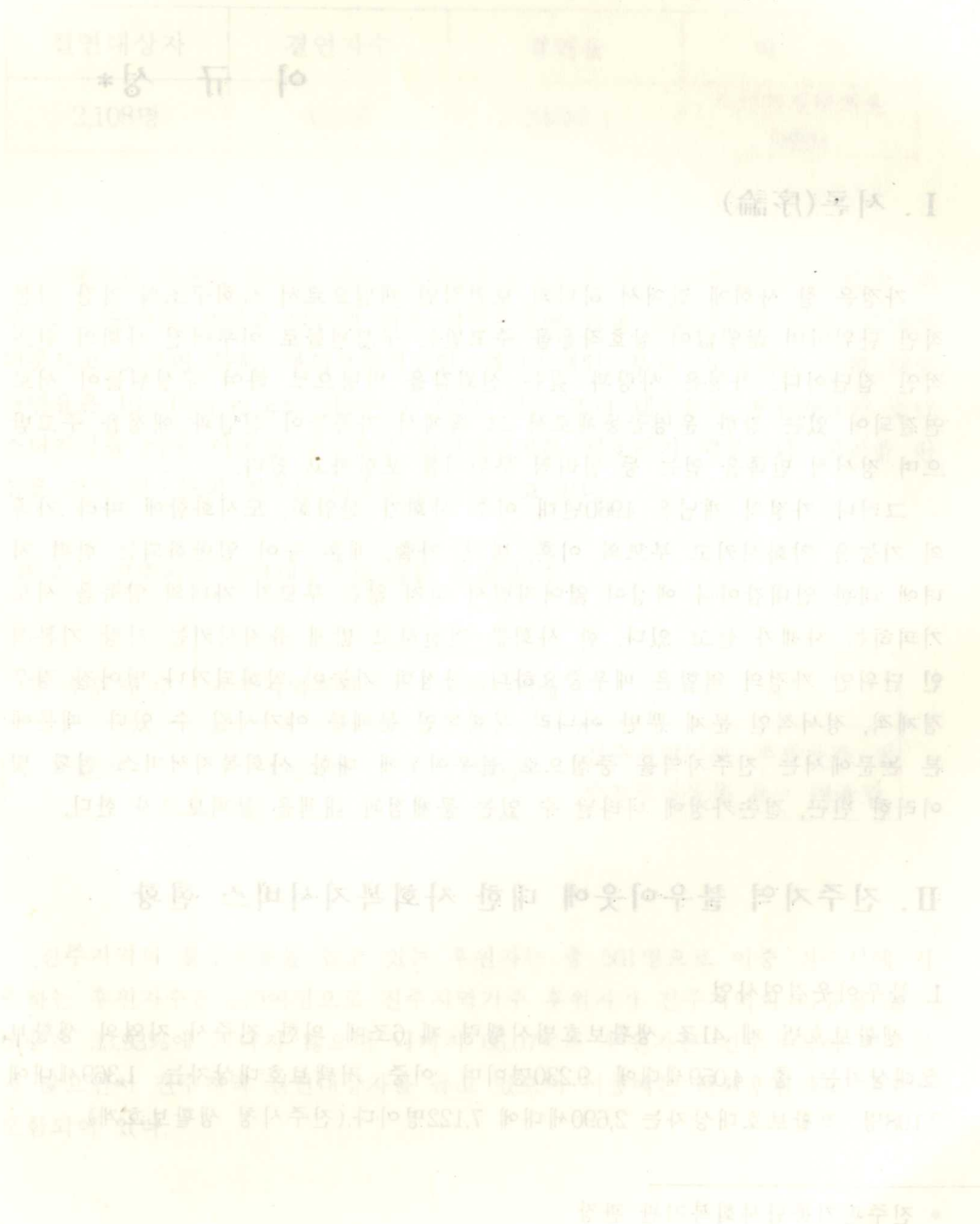
아직은 준비 단계라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97년 5월경 개소를 목표로 지역내 여론확산과 참여인사모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 작업으로 7월 20일 '성폭력방지를 위한' 호루라기 배포 및 홍보, 9월 19일 '성폭력의 실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간담회, 10월 23일 에서 11월 7일 까지의 '부모를 위한 성교육 강좌' 등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학생상담 교사를 위한 성교육강좌와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일차적으로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지만, 앞서 얘기한 여성의 인권의 전반적인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성폭력 등 여성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억압이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기관이 꼭 있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을 것으로 믿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 4. 마무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

적인 의식의 변화 없이는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여성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여성의 인권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인간성의 관점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성역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 빈민·결손 가족 문제

### 이 규 성\*

#### I. 서론(序論)

가정은 한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사회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원초적인 집단이다. 가정은 사랑과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강한 운명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가족들이 신념과 애정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만족을 얻는 등 심리적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개념은 1960년대 이후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함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재혼 등이 일반화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인내감이나 애정이 줄어들면서 적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서로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사회를 건전하고 밝게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의 역할은 매우중요하다.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떨어질 경우 경제적, 정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불우이웃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및 이러한 빈곤, 결손가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진주지역 불우이웃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 1. 불우이웃결연사업

생활보호법 제 41조 생활보호법시행령 제 6조에 의한 진주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4,059세대에 9,230명이며 이중 거택보호대상자는 1,369세대에 2,108명, 자활보호대상자는 2,690세대에 7,122명이다.(진주시청 생활보호계)

\*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중 보건복지부로 부터 불우이웃결연사업을 위탁받아 경상남도 지역의 불우이웃결연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경남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선결연대상자로 관리하는 거택보호대상자의 결연자수는 429명으로 우선결연대상자 2,108 중 20.35%만이 결연 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4-1. 진주시 결연대상자 및 결연자 수

결연대상자	결연자수	결연율	비 고
2,108명	429명	20.35%	소년가장결연율 100%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결연율이 20.3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연후원에 대해 지역주민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무의탁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부자·모자세대 등에 대한 결연율은 10~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또한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아동을 중심으로 결연대상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시·도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 진주지역 결연대상자를 돕는 후원자 수

총 후원자 수	진주지역후원자수	후원자비율	비 고
501명	170여명	33.93%	진주지역거주 후원자가 진주지역아동을 돕는 비율임

진주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 후원자는 총 501명으로 이중 진주시에 거주하는 후원자수는 170여명으로 진주지역거주 후원자가 진주지역의 아동을 돕는 비율은 33.93%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66.07%의 후원자는 진주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진주지역 결연대상자를 돕고 있으며 이중에는 해외후원자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2.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비스

진주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미/교양 프로그램, 직업부업기능훈련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표 4-3.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비스 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주 참여대상
취미/교양 프로그램	서예, 컴퓨터, 한문, 외국어, 가요, 기타, 꽃꽂이, 포크댄스, 피아노, 아동공부방, 계절학교, 장미교실, 부모교육 등	아동, 청소년, 주부
직업/부업기능 훈련	홈패션, 양재, 차밍, 생활도예, 스텐실과 퀼트, 요리, 한지공예 등	주 부
견학, 관광 프로그램	청소년 캠프, 선진지 견학, 노인효도관광, 노인생신잔치,	청소년, 노인
특수아동조기 교육센터	특수아동 개별지도, 장애아탁아교실, 장애아 그룹지도 등	장애아동
기 타	노인무료중식제공, 생활비 및 긴급구호비 지급, 상담, 자원봉사자 파견서비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전세대
재가복지서비스	결연후원금 지급, 이·미용서비스, 무료한글교실, 방문미용서비스, 밀반찬제공서비스, 물품지원서비스, 무료진료서비스, 무료물리치료 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전세대

※ 위 표는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예시함.

III. 진주지역 불우이웃의 문제 및 대책

1. 경제적인 문제

가족부양의 책임을 맡았던父나 母가 상실된 가정이나 고령, 질병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생계에 대한 위협이다.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빈곤이며, 경제적 빈곤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사망으로 근로능력자가 없는 경우, 학력, 경력이 없는 경우, 기술, 취업기회가 없는 경우로 이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은 가족원이 성장하거나 질병이 완치되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정부의 공적부조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서적인 문제

생계유지를 위협받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역할의 혼돈에 의한 불안, 갈등, 긴장 등 정서적 문제는 인간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단계에 있는 이들 가족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되며 이들이 경험해야 할 각종 정서적 문제들은 이들의 성격과 태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지적, 도덕적 능력의 발달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사회사업가의 심리적, 정서적 제반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3. 교육의 문제

가정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원한 학교라고 볼때 이들은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의 중요한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가치판단이나 사회적응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은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학교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위해 정규학교 교육을 위한 기회제공이나 학비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주택문제

빈곤가정의 주거상태를 보면 친척집, 월세, 전월세, 전세, 무료임대, 무허가주택들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노인정, 통장택 등 일시적으로 기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료임대아파트,



근로청소년 복지관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지원받는 정부보조금 및 지역사회 후원금의 대부분이 주거관리비(월세)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이들대부분은 문화적인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수도부족, 공동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의 사용은 그들의 일상생활 처럼 행해진다.

#### IV. 결론(結論)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하나의 holon으로써 가정의 구성원인 개인에 대해서는 인간성장발달에 기초가 되는 1차적 환경이며 사회에 대해서는 그 사회를 형성하며 존속시키는 필수적인 기본 단위가 된다.

따라서 가정의 기능이 상실되고 가족의 정서적 불안, 긴장이 심화되는 해체 가정으로서의 빈곤가정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관의 적절한 대책은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불우한 상황에 처해있는 빈곤가정이 더 이상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위에서 제시한 경제적, 정서적, 교육적 및 주택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점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율적인 공적부조를 위한 전문사회사업기관의 개입과 지역사회주민들의 공동참여에 의한 민간기관의 가정복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방 및 치료의 측면에서 전문사회사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위한 후원자 결연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